

차범석 희곡의 에로스 연구

이원희(전주교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퇴행욕구와 페르소나 놀이 |
| 2. 자기보존욕구와 자기애(self-love) | 5. 결론 |
| 3. 에로스 욕구의 좌절과 죽음충동 | |

1. 서론

한국희곡사에서 차범석의 비중은 매우 크다. 그는 1930년대 유치진의 희곡을 계승해 한국 사실주의 희곡의 계보를 이었으며, 50년대 한국전쟁을 거치고 60년대 이후부터 그가 생존했던 기간 동안 동시대의 삶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대표적인 희곡작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대표작인 <산불>은 리얼리즘희곡의 최고작이라는 평가¹⁾를 받은 이후 많은 논자들은 이 평가에 대체로 공감함으로써 명실공히 해방 이후 대표적인 사실주의 희곡작가로 자리매김 되었다.²⁾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5135A)

1)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기린원, 1987, 458면.

2) 차범석은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을 언급

연구자 역시 차범석 희곡의 사실주의적 경향은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의 희곡을 사회 현실의 반영, 즉 사실주의적 시각으로만 읽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차범석이 그의 희곡작품에 구축한 사회 현실은 희곡 인물들의 내면성을 들추기 위한 하나의 극적 장치이다. 말하자면 환경은 인물이 대응하는 근거이자 행동의 조건이다. 요컨대, 인물들이 처한 환경은 그들의 행동을 동기화하는 자극제이며 행동을 유발시키는 발생론적 배경인 셈이다. 따라서 차범석 희곡에서 논의의 초점은 구축된 환경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인물들의 반응양상에 맞춰져야 한다. 크든 작든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이 자극하면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희곡의 유력한 분석 작업 가운데 하나는 인물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의미를 추출하는 일이다. 그런데 인물의 언행은 결국 환경에 대한 인물의 언어요 행동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희곡 인물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환경에 있다. 이런 점에서 환경적 상황이 개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는 자극-반응(S-R)의 행동주의 이론³⁾은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공한다.

차범석 희곡의 인물들의 양상 역시 그들이 처한 환경 조건을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다.⁴⁾ 그럼에도 차범석이 사실주의 계열의 작가임을 전제하고 그의 작품을 당대의 시대윤리나 풍속도⁵⁾로 포착하거나, 이데올로기로 접근하는 연구⁶⁾는 희곡의 핵심 동력이 인물⁷⁾에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한 데서 발생한 것이다.

이점에 입각해 본고는 차범석의 희곡 가운데 인간 본연의 성 본능을 다룬

함으로써 그가 사실주의 작가임을 더욱 공고히 했다.

『현대한국문학전집』 9, 신구문화사, 1968, 497면.

3) 손병덕 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05, 171면.

4) 이점에 대해서 차범석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행동은 인간 자체의 자연적 존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외적 자연과 항상 적응하려고 하고 반발하려고도 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작용을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차범석, 『리얼리즘 연구 소고』, 『연극학보』 2집,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 1968, 48면.

5) 이승희, 『1960년대 차범석 희곡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11집, 태동, 2000, 194면.

6) 유민영, 앞의 책, 458면.

7) 가이베 가즈토, 허 환 역, 『드라마란 무엇인가』, 시나리오 친구들, 2000, 61면.

장막희곡 3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으로는 <산불>, <청기와집>, <장미의 성>이다. 이들 작품은 억압된 성 본능 에너지가 분출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남성 부재라는 환경이 여성들의 성 본능 에너지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 작품에 조성된 환경은 우연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양상을 탐구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구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성 본능을 다룬 작품을 에로스⁸⁾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프로이트의 언급대로, 에로스(eros)는 타나토스(thanatos)와 더불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 요인으로 인간을 해명하는 심리적 기제이기 때문이다.⁹⁾ 또한 삶의 충동인 에로스는 죽음의 충동인 타나토스와 등가로서 삶을 해명하는데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논의의 설득력을 높인다.

로제 다룬에 따르면¹⁰⁾, 에로티즘을 단순히 성(sex)과 성애(sexuality)를 넘어서 삶과 죽음을 포함해 인류의 생존자체에 결부된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남성 부재 상황에서 여성의 성충동은 단순히 생물학적 애욕의 표출보다는, 그러한 환경에 대한 여성 심리가 표출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은 생리적이며 심리적인 존재다. 이때 생리와 심리는 외부환경에 의해 조종되는 육체적이며 내면적인 현상이다.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이 인간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프로이트의 말은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

본고는 앞서 언급한 차범석의 장막희곡 3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을 원용해 에로스적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들 작품은 공히 여성의 억압된 성이 표출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주체들의 행동적 의미를 에로스를 통해 추적하고 이들이 성을 소유하는 방식을 해명함으로써 에로스적 시각

8) 에로스(eros)라는 용어는 플라톤의 『향연』에서 최초로 등장하나 그 의미는 현대와 많이 다르다. 이 책에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에로스를 잃어버린 또 다른 자기를 찾는 힘으로 설명한다. 본고는 에로스를 성 본능 에너지 즉 리비도로서 존재의 본능적 쾌락원리와 분열된 자아(ego)를 통일시켜 온전한 자기(self)를 형성시키는 힘 또는 충족의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플라톤, 강철웅 옮김, 『향연』, 이재이북스, 2010.

9) 조용훈, 『에로스와 타나토스』, 살림, 2005, 37면 재인용.

10) 로제 다룬, 신정아 옮김, 『에로티즘』, 철학과 현실사, 2006.

에서 차범석 희곡이 지니는 또 하나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자기보존욕구와 자기에(self-love)

1962년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산불>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리얼리즘적인 경향¹¹⁾과 원초적인 성욕¹²⁾에 관한 방향으로 정리된다. 이 작품은 6·25전쟁이 작품의 배경을 이루고 이런 환경에 의해 여성들의 억압된 성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전쟁과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사회 반영적 리얼리즘의 시각으로 접근한 기존 <산불> 연구는 차범석의 다음 언급을 음미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일정한 방향이나 의미도 없이 끌려다니는 무지한 사람들이 애정의 원색은 곧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 나는 여기 문명도 의욕도 찾아볼 길 없는 깊은 산속에서 그릇된 사상의 희생과 갈등을 통해 지난 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상처를 어루만지며 잃어버린 인간성을 찾고자 붓을 들었다.¹³⁾

작가가 언급한 <산불>의 창작 의도다. 작가는 ‘애정의 원색’을 통해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잃어버린 인간성’을 탐색하기 위해 <산불>을 집필했다고 말한다. 이로 볼 때 <산불>은 전후 이데올로기 문제가 봉합되지 않았던 당대의 사회상을 충실하게 반영한 리얼리즘적인 작품이라기보다는, 인물들을 일정한 환경 속에 배치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삶의 양태를 통해 인간의 존재양상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산불>을 세계와 자아와의 관계로 작품으로 해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원초적 성욕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 역시 수궁하기 어렵다. 요컨대

11) 유민영, 앞의 책.

백로라, 『1960년대 희곡과 이데올로기』, 연극과 인간, 2004.

윤일수, 『차범석의 <산불> 연구』, 『차범석 희곡 연구』, 무천극예술학회, 국학자료원, 2003.

12) 김옥란, 『1950년대 희곡의 성담론』, 『한국연극연구』 창간호, 국학자료원, 2008.

이승희, 앞의 논문.

이봉일, 손정섭, 『차범석의 <산불>에 나타난 성적 욕망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2호, 2005.

13) 차범석, 국립극단 제29회 <산불> 공연 팸플릿, 1962.

차별적 희곡 인물은 단순한 성욕 충족 논리가 아닌, 환경에 대응하는 개인의 생리-심리적 반응으로 접근해야 한다.

작품에 구현된 핵심 서사나 앞에서 언급한 작가의 창작 의도를 염두에 둘 때, 이 작품은 세계로 인해 가격당한 손실된 자아를 조정하는 정신작용을 - 정확히 말하면 생리적, 심리적으로 자아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힘 - 을 통해 인간의 존재적 의미를 드러내는데 있다. 이때 자아조정의 정신작용은 환경에 의해 분리, 해체, 파괴된 자기동일성을 복원해 통합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삶 본능¹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불>은 환경이 가격한 외부충격적 경험을 인물들이 어떻게 자기조정력을 형성하며 환경에 반응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산불>은 P부락 주민들이 전쟁으로 인한 이념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성 부재의 현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내용이다. 이때의 고통은 노동과 성으로 집약된다. 이 둘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고통이 증대될수록 그만큼 건장한 정신을 훼손하고 삶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를 굳이 빌리지 않아도, 전쟁은 다량의 생명을 살상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죽음의 충격 못지않게 산 자들의 삶을 무력하게 하는 게 전쟁이다. 삶의 질서가 송두리째 붕괴되는 전쟁은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메커니즘이다.

<산불>에서 작품의 핵심 서사를 견인하는 점례와 사월이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안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양씨의 며느리인 점례는 청년단에 들어간 남편이 이년 동안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온전치 못한 시동생¹⁵⁾과 함께 사는 이십대 후반의 여자다. 시어머니인 양씨 외에는 사실상 노동 불능의 가족 환경에서 점례는 가부장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가령, 마을 처녀 끝순이가 타관에 나가 돈을 벌어야겠다며 점례에게 은근

14) 삶 본능은 개체보존본능인 자아본능과 종족보존본능인 성 본능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삶 본능을 에로스라고 말한다. 그런데 삶 본능인 에로스는 삶의 여러 충동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묶는' 힘 또는 구성하고 합성하는 힘으로 나타난다.

이창재, 『프로이트와의 대화』, 학지사, 2005, 282면.

15) 점례가 처한 가족환경을 보면, 시할아버지(김노인)와 시동생(귀덕)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심리적 결손을 지닌 인물들로서 생존을 위한 노동이 불능한 상태이고, 시어머니 양씨는 이장이라는 사회적 직분과 아들이 청년단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공비들의 주목을 받는 인물 이기에 개인적 자아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히 권유하자 점례는 자신에게 걸려 있는 사람이 많아 그럴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바로 점례의 가부장적 책임의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마음 편하겠'다며 끝순이를 부러워하는 점례의 말에서 현실화할 수 없는 그녀의 내면적 욕구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점례에게 남성 부재라는 외부 환경은 가정 보존이라는 가부장적 책임의식을 강화시키며 사회적 자아를 유지케 하지만, 개인의 생물학적 성 본능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럴 경우,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삶 본능인 에로스가 억압되어 무의식에 편입된다. 그러나 무의식은 고요한 침전물이 아니다. 무의식은 끊임없이 의식세계를 간섭하는 역동성을 지닌다.¹⁶⁾ 남성 부재로 인한 점례의 에로스 욕망은 그녀가 처한 또 다른 상황 즉 가부장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에 억압되어 무의식의 심연으로 가라앉았을 뿐이다. 따라서 상황이 조성되면 얼마든지 삶 본능인 에로스가 분출될 수 있다. 무의식이 역동성을 지닌다고 말했듯이, 무의식은 언제나 의식세계로 회귀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점례가 처한 환경은 남성 부재가 초래한 리비도¹⁷⁾를 억압하는 기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억압된 리비도는 언제든지 의식세계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생명보존 에너지로서 점례의 리비도 욕망은 그녀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 무의식의 심연에 가라앉아 소멸된 듯 보이고 오직 현실이 요구하는 삶의 문제를 처리하는 일에 그녀의 자아(에고)는 집중된다.

점례 : 그만 좀 해둬요! 이려고 있을 게 아니라 빨랑빨랑 해치워야잖아요? 이제 곡식을 가지러 올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오늘밤 야경 나갈 사람은 그 채비를 해야지요.¹⁸⁾

밤마다 공비들이 마을로 내려와 곡물을 거둬가고, 번갈아가면서 야경을 서라고 하자 마을 주민들은 살기 위해 그들의 말을 따른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현실 문제보다는 과거에 고착되어 서로 간에 옹고그름만을 따지고 있을

16) 이창재, 앞의 책, 126면.

17) 리비도는 성적 본능 에너지로서, 생의 본능 뿐만 아니라 죽음 본능까지 포함하는 용어다.

18) <산불>, 『한국회국문학대계』 4, 한국연극사, 1980, 67면.

따름이다. 그들 앞에서 짜증내듯 말하는 점례의 대사에서 그녀의 신경증적 병리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목되는 점은 과거에 전전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점례의 현실인식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이상 심리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된다. 현실 자아에 의해 밀려난 본래 자아는 억압되어 무의식 속에 갇히나 이는 언제든지 의식세계로 발현하려는 무의식의 역동성과 회귀성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점례가 우연히 규복을 만난 이후인 3막 1장에서 점례가 ‘전보다 명랑해 보이는’ 것은 점례의 억압된 리비도가 되살아났다는 증거이다. 이처럼 점례는 가부장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으로 인해 리비도 욕망이 억압되었으나 현실 상황의 변화 즉 규복과 만남이 지속되면서 차츰 억압된 리비도 욕망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인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점례는 강박적 리비도의 유형¹⁹⁾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본능을 현실과 분리시켜 초자아(super ego)가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질서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비도는 현실원리에 의해 강박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반면에 점례와 나이가 비슷한 사월의 경우는 다르다. 사월은 최씨의 딸로, 남편이 빨갱이로 몰려 죽고 어린 딸이 딸린 과부이다. 사월은 자기 딸의 울음에 신경질²⁰⁾을 내면서 죽어버리면 좋겠다며 무망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 한마디로 사월은 생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이다. 그건 비슷한 또래인 쌀레네의 말처럼, ‘새파란 과부의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월 : 우리끼리 사이에 말 못할 게 뭐람! 나는 정말이지 이대로는 못살 것 같아! 자식이고 부모고 없어!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점례 : 그렇다고 혼자서만 잘 살 수도 없지. 뭘 그래. 죽을 먹건 헐벗건 식구가 한 자리에 사는게 좋지? 사월이네처럼 그렇게……

사월 : (다시 흥분해지며) 내가 어떻다는 거야! 이 나이에 사람 구경도 제대로

19) 프로이트, 김정일 옮김,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2, 41면.

20) 성 충족 결핍에서 오는 불만을 우는 어린 딸에게 표출하는 사월의 행동은 정신분석학 용어로 표현하면 전치(displacement)에 해당한다. 이 역시 자신의 이상 심리를 포장하기 위한 방어기제이다.

손병덕 외, 앞의 책, 203면.

못하면서 한평생을 도토리 껍데기가 되란 말인가! 내일 모레면 우리도 서른이야! 알겠어?²¹⁾

사월의 이런 태도는 어머니 최씨에게 서방을 얻겠다는 대목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화냥년’ 소리를 들어도 사월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사월의 태도는 제어할 수 없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심리적 배경이 깔려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이는 동일한 처지에 있는 점례와 비교된다. 즉 점례가 자아와 초자아에 의해 현실원리를 존중함으로써 리비도를 억압하는 강박적 유형의 인물이라면, 사월은 전형적인 성애적 유형의 리비도²²⁾를 지닌 인물이다. 따라서 사월은 항상 대상 리비도(object-libido)²³⁾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자식이고 부모’보다는 자신이 ‘살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녀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띠는 건, 남성 부재라는 환경 때문이다. ‘서른’이 될 때까지 ‘사람 구경’을 못하는 현실. 사월에게 이러한 환경적 현실은 리비도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인해 부정적인 성격을 띠게 한다. 사월이 보여주는 광기와 흥분, 히스테리, 이유 없는 침묵과 공격적 어조 등 부정²⁴⁾적인 태도가 규복을 만나기 전까지 지속되는 건 성애적 리비도의 억압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규복의 출현은 사월에게 있어 억압된 성애적 리비도의 귀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규복을 중심으로 점례와 사월이 대립적이며 경쟁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이들이 불화나 갈등하지 않는 건, 두 인물 공히 억압된 리비도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사월의 광기와 공격성은 억압된 리비도의 귀환으로 완화되고, 점례는 규복에게 자수를 권하며 현실 논리를 강조한다. 점례가 자아 리비도를

21) <산불>, 앞의 책, 78-79면.

22) 이 유형에 속하는 인물의 주된 관심 혹은 그들의 리비도의 대부분은 사랑을 향해 있다. 이들에게는 사랑을 하는 일, 특히 사랑을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항상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받으며 자신들의 사랑을 말리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의존적이다. 프로이트, 앞의 책, 40면.

23) 대상 리비도란 어떤 대상에게 향하는 리비도를 말한다. 프로이트, 앞의 책, 342면.

24) 이때 부정은 일종의 방어기제로서, 무의식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자아기능의 한 측면으로 설명된다. 즉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거부함으로써 현실과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다. 손병덕 외, 앞의 책, 203면.

유지하면서 현실원리의 지배를 받는 강박적 리비도 유형이라면, 사월은 오로지 성적 파트너만을 추구하는 대상 리비도적 경향을 보인다. 사월의 그러한 경향은 성 충족 욕구가 현실원리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남성 부재의 성 억압 환경에서 두 여성의 리비도적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가족을 유지해야 하는 점레나, 가족보다는 자신의 내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월은 공히 자기보존욕구와 자기애(self-ego)가 각기 다른 유형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불>을 삶 본능의 에로스 시각으로 접근할 때 김노인과 귀덕의 행동양상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점레의 시할아버지인 김노인은 극중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까닭없는 부수물’²⁵⁾도 아니다. 양씨와 최씨의 팽팽한 대립 상황에서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 새통스런 말로 긴장을 이완시키는 희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노인이 에로스적 시각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가 내뱉는 동어반복적인 말이다. 김노인은 ‘밥’ 달라는 대사를 습관적으로 구사한다. 이러한 김노인의 ‘밥타령’ 패턴은 점레와 사월의 억압된 리비도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그에게 ‘밥’은 표층적인 의미를 넘어서 작품 전체의 의미형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밥은 생물학적으로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남성이지만 남성적 구실을 할 수 없는 김노인의 반복적인 ‘밥’ 요구는 식욕을 드러내는 동시에, 현실불능한 자신의 성욕²⁶⁾ 그리고 점레와 사월 나아가 극중 여성 인물들의 성에 충족 욕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에 다름 아니다.

귀덕 역시 마찬가지다. 그녀는 전란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진 전쟁 트라우마를 지닌 인물이다. 따라서 귀덕은 환경에 의해 인간성이 파괴된 인물이다. 그녀의 대사와 행동에서 <산불>을 에로스로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김노인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귀덕 : 영감 땀감 불알이 흥시감 하히……

(중략)

귀덕 : (마당으로 들어서며) 저 새끼들이 막 내 치마를 벗기잖아!²⁷⁾

25) 노스롭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 245면.

26) 프로이트, 앞의 책, 235면.

심리적 외상 탓에 정상적이지 않지만 귀덕은 육체적으로 성숙한 인물이다. 그녀가 마을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을 주목할 때 사춘기의 성적 호기심을 넘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 양씨가 장에 갈 때 무작정 따라나서는 행동이나, 시집가라는 꿈 이야기를 점례에게 들려주면서 장터에 가면 총각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꿈이 무의식의 전령사라고 할 때 귀덕의 꿈 메시지는 그녀의 잠복된 성 본능의 에로스 욕구가 단적으로 표출된 경우이다. 또한 귀덕이 ‘총각’들을 만나기 위해 장터를 가고자 고집을 부리는 모습에서 즐기차게 솟구치는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 리비도를 찾으려는 욕망을 읽을 수 있다.

김노인과 귀덕 외에도 ‘엄마가 죽으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갈’ 것이라는 끝순이나, 마을을 떠나 시집을 가는 정임은 사월의 억압된 에로스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도봇장수 병영택은 ‘주위가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P부락’ 여성들에게 외부와 차단되고 전쟁으로 억압된 성적 욕망인 에로스를 부추기는 기능을 하면서 인물 심리를 자극하여 행동의 개연성을 부여한다.

이와 같이 <산불>은 지리적 요건과 전쟁이라는 상황 즉 인물들이 처한 환경으로 인해 억압된 에로스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공비를 잡기 위해 대밭을 태우는 산불의 의미는 이런 의미에서 작품 서사와 관련해 큰 주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산불은 작중인물들의 불타는 에로스 욕망이라는 메타의미를 지닌다. 이는 결국 삶에의 강한 욕구 즉 에로스로서 자기보존욕구인 동시에 자기애이다. 이런 맥락에서 <산불>은 전쟁 이데올로기나 가부장적 목소리 등 60년대 시대상을 반영한 사실주의 측면이라는 규격화된 해석보다는, 전쟁이라는 반생명적 상황에서도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려는 에로스의 분출이라는 생명주의적 시각으로 읽을 수 있다.

3. 에로스 욕구의 좌절과 죽음충동

1964년 『세대』에 발표된 <청기와집>²⁸⁾은 4막으로 구성된 장막희곡이다.

27) <산불>, 앞의 책, 74-75면.

28) 차범석, 『대리인』, 선일인쇄사, 1969.

넓은 청기와집에서 3대째 살아가는 하대덕 가족들의 삶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족 서사’를 다룬 작품이다. 가족은 1차적인 삶의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체로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욕망을 억압하고 이들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불화와 갈등이 잉태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은 심리적인 면에서 볼 때 안정심리와 불안심리를 동시에 안고 있다.

<청기와집> 역시 마찬가지다. 하대덕을 중심으로 후처인 이씨, 소작인 딸로 하대덕의 첩이면서도 하인의 위치에 있는 일룡네, 장남 기룡의 처 정원, 시집 온 지 일 년도 안 되어 과부가 된 며느리 옥녀 등 중요한 인물들은 겉으로는 큰 탈 없이 가정생활을 영위하지만 저마다 존재의 고독감을 안고 산다. 그리하여 이들의 욕망은 항상 외부로 향한다.

하대덕의 후처인 이씨는 장남 기룡이로부터 ‘당신’이라는 말을 듣고는 분노하고, 일룡네는 하대덕의 아들을 낳아 하대덕과 한 집안에서 살지만 아내 노릇을 하지 못한 채 집안 수발이나 하는 하인과 같은 존재이며, 하대덕의 장남 기룡의 아내인 정원은 ‘이십년이 지난 오늘까지 정다운 말마디 한 번’ 들어보지 못한 채 ‘한 달에 한 번씩 그림자만 비치고 지나가는’ 남편에게 불만을 갖는다. ‘하씨 문중에 들어와서 얻은 거라곤 가슴에 든 명박에 없어 삼백예순날 배개를 눈물로 적시고 살았’기에 정원은 ‘차라리 소박이라도 맞고 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옥녀는 결혼한 지 일 년만에 남편이 죽고 십 년 세월을 청상 과부로 살아간다. 그녀는 체념하고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는 주변인물에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그녀는 리비도 본능을 애써 억누르나 언제든지 리비도 에너지가 분출할 수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3대째 살고 있는 청기와집이라는 공간 그리고 여성인물들이 처한 여러 삶의 조건은 이들의 내면적 욕구를 억누르며 욕망을 차단시키는 현실의 견고한 기제로 작용한다.

달리 말하면 <청기와집>의 여성인물들은 그들이 처한 가족 환경으로 인해 개인적 자아가 지닌 삶 본능을 억압하고 주체를 타자화한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청기와집>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은 억압심리로 인해 자기쾌락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상 심리의 징후만을 증식시킬 뿐이다. 그 결과 억압으로 인한 삶 본능 에너지는 방향을 바꿔 다른 면으로 방출된다. 가령, 일룡네에 대한, 상황 맥락과는 무관한 이씨의 질투(81면), 옥녀의 과민반응(85

면), 하대덕 집안에 대한 일룡네의 미움과 무관심(86면), 정원의 잦은 읍내 외출(87면) 등은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기인한 것들로서 심리적 불만족을 다른 행동으로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문제발생상황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표출된 이들 리비도의 방향틀기는 심리적 일탈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인물들은 환경이 주체의 내면적 삶 에너지인 에로스를 억압함으로써 비정상성을 띤다.

이처럼 <청기와집>에서 이씨, 일룡네, 정원, 옥녀는 가족 환경의 억압 탓에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여성들이다. 이 가운데 특히 옥녀는 남자를 만나 집을 떠나려 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한 여성이다. 그녀는 하참봉의 서자인 일룡이가 십여 년만에 집으로 돌아오자 그에게 입힐 저고리를 지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드러낸다.

옥녀 : (어떤 환상을 좇으며) 저도 마찬가지로예요. 시집은 지 일 년도 채 못 되어 과부가 된 후부터 오늘날까지 혼자서 입술에 핑이 들도록 깨밀며 참아온 내가…… 살 보람을 느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²⁹⁾

옥녀의 환상은 장차 일룡이와 결합하는 일이다. 일룡이 옥녀와 함께 서울 가서 살자고 한 이후에 옥녀가 ‘전보다 활발해진’ 모습을 보이는 장면은 <산불>에서 점례가 규복을 만난 후의 행동변화와 맥락이 유사하다. 억압된 리비도의 출구가 열린 계기가 <산불>에서 점례에게 규복의 출현이었듯이, 옥녀의 경우는 일룡의 제안이다. 그리하여 옥녀는 일룡을 통해 그동안 참아왔던 심리적 억압기제들을 모두 풀어버리고 ‘새로운 힘과 보람’을 느끼고자 한다. 그러나 일룡이가 사기범으로 체포되어 나가자 실신할 정도로 우는 일룡네에게 하는 옥녀 대사는 삶 본능이 죽음 본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옥녀 : (불들며) 진정하세요…… 네? (하며 운다) 작은 어머니나 저는 이렇게 울다가 죽어요…… (하며 통곡한다)³⁰⁾

29) <청기와집>, 앞의 책, 122면.

30) <청기와집>, 앞의 책, 137면.

옥녀에게 죽음충동은 에로스 욕구의 좌절된 결과에서 발생한 것이다. ‘새로운 힘과 보람’을 일룡을 통해 얻고자 했지만 무산되자 죽음을 떠올린다. 옥녀의 죽음충동은 그러므로 자기애와 성 욕구의 삶 본능 즉 에로스의 좌절에서 기인한다. 삶 본능과 죽음 본능³¹⁾은 분리된 게 아니라 피비우스 띠처럼 서로 얽혀져, 삶 본능의 극단적 희열이나 절망적 좌절의 끝에서 죽음 본능이 충동한다. 옥녀의 경우, 청상과부로 십년을 버티면서 억압해온 성애적 리비도가 일룡의 체포로 좌절되자 죽음충동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따라서 옥녀의 죽음충동은 성 욕구와 자기애로서의 에로스 욕구가 급작스럽게 좌절됨으로써 발생하는 심리현상이다. 이것이 죽음충동이라는 자기소멸의지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이씨와 일룡이네, 정원 등은 옥녀와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환경에 있지만 그들의 행동양상은 옥녀와는 다르다. 이들은 억압된 에너지를 외부로 분출하기보다는 다른 행동으로 치환(displacement)함으로써 억압심리를 보상받고자 한다. 가령, 이씨의 경우, 겉으로는 남편과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하대덕의 장남인 기룡이 이씨에게 거칠게 말하자 망연해 할 뿐 어떤 분노도 보이지 않는다.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존재인정욕구가 파괴됨으로써 이씨는 소리를 높여 억울한 감정을 드러내지만 대항적 목소리는 공격적이지 않다. 비록 후처일지라도 남편과 삼십년 이상 살아온 이씨이기에 그녀는 가족관계에서 당당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처의 아들인 장남이 자신에게 몰상식적인 말을 했음에도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비록 하대덕의 후처일지라도 이씨 스스로가 그의 부인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씨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라는 가족윤리 즉 현실원리에 지배받는 인물인 셈이다. 따라서 아들 기룡이가 자신에게 폭언을 해도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일룡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일룡네에게 이씨가 심하게 대하는 건 일룡네가 남편 하대덕의 아들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씨에게는 트라우마이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소멸되지 않았기에 이씨는 일룡네를 곱게 보지 않으며 상황맥락과 관계없이 질투하고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남편과 인연이 있

31) 죽음본능은 유기물이 그 자신의 내적 긴장을 소멸시키고 무기물 상태, 환언하면 죽음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본능이다. 이 죽음본능이 리비도와 연결되어 외부를 향할 때 사디즘의 관능에 이르게 되며, 내부에 머물 때 마조히즘의 관능에 이르게 된다. 유기환, 『에로티즘의 기원과 역사』, 한국프랑스학논집 37집, 2002, 158면.

는 또 다른 여성에 대하여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이씨가 아들 기룡의 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모-자식 관계라는 현실원리가 작동된 결과이자, 자신이 후처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면화과정을 거쳤기에 가능하다. 반면 일룡네에게 적대성을 갖는 건 과거 트라우마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도한 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이씨가 현실원리에 충실히 따르는 자기제어능력 즉 에고가 리비도보다 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정원의 경우는 이씨와 상황이 다르다. 오랜 세월 남편이 집을 비운 터라 정원은 형식적으로만 남편과 부부관계를 유지할 뿐 사실상 옥녀와 마찬가지로 남성 부재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옥녀가 일룡을 따라 서울로 가서 ‘새로운 힘과 보람’을 얻으려는 강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원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령, 일룡을 위해 시아버지인 하대덕이 산을 팔려고 하자, 서울에 있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몰래 알려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정원은 남편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에 속박된 면모와 더불어 물질추구에 집착을 보인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날카로운 신경증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이중심리는 남편에 대한 존재인정이자, 한편으로는 남편 부재 상황이 초래한 히스테리라고 할 수 있다. 정원의 이러한 정신착란 현상은 그녀의 자기동일성 힘이 약화된 결과이다. 이는 결국 심리적으로 강력한 자기에적 리비도가 발현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그녀는 성적 대상인 남편을 타자화하고 대신 청기와집이라는 재산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그녀의 삶 본능 에로스는 물질지향으로 대체된 면모를 보인다. 요컨대, 남편 부재라는 비슷한 환경에서 옥녀가 에로스 욕구의 좌절로 죽음충동을 야기하는데 반해, 정원은 에로스의 충족욕구를 물질에서 보상받고자 하는 점이 다르다.

4. 퇴행욕구와 페르소나 놀이

<장미의 성>(1968년)³²⁾은 전4막으로 구성된 장막희곡이다. 서사가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개되어 사실주의극의 구조원리가 충실히 반영된 이 작품에

서 윤병희는 명망가답지 않게 병적 증후를 보이는 인물이다. 남편과의 충격적인 이별 그리고 오랫동안 남편 부재 상황이 윤병희의 삶을 비정상적인 일탈로 이끈 것이다.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은 여성 조각가 윤병희는 외부와 차단한 채 시어머니 이씨와 딸 상애 그리고 식모 일순과 함께 산다. 저녁에 딸의 가정교사 오영택이 찾고, 이따금씩 미술평론가 겸 화상인 김한기가 방문할 뿐 윤병희는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려한다. 이러한 윤병희의 성격은 그녀의 생활공간인 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윤병희의 집은 도시에서 떨어진 외곽에 있으며, ‘천장과 창에 차일 구실을 하는 커튼이 드리워진’ 실내풍경은 ‘음산한 기운’이 가득 찼 정도로 폐쇄적이다. 그녀가 유일하게 즐겨 찾는 집 뒤의 장미 화원은 기자들의 말대로 장미의 성을 이룬다. 윤병희는 외부인, 심지어는 식모인 일순조차 출입을 금하게 한 채 장미 화원을 오직 자신만의 영토로 인식한다. 이처럼 집의 위치와 실내 분위기 그리고 스스로가 장미의 성에 유폐되어 감금 생활을 하는 모습에서 윤병희 성격과 심리적 특성을 가늠케 한다.

윤병희의 이러한 폐쇄적인 모습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말하면 소망충족 즉 퇴행욕구³³⁾에서 기인이다. 이런 심리현상이 발생된 원인은 윤병희가 과거 삶에서 어떤 심각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불안과 공포와 같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유년기로 되돌아가 안정을 찾으려는 욕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퇴행욕구 역시 일종의 방어기제(defence mechanism)로, 무의식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자아의 한 기능이다. 인간의 마음은 심리적으로 쾌(快)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불쾌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항상성(恒常性)의 원리인데³⁴⁾, 퇴행욕구 역시 이러한 심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윤병희는 어느 날 김한기로부터 남편의 소식을 듣지만 찾기는커녕 오히려 증오한다. 플래시백 기법으로 재현되는 남편과 헤어지는 과거 장면을 통해 윤병희의 현재 심리상태의 단초를 알 수 있다. 과거에 남편은 윤병희와 결혼하고도 계속 사랑하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

32) <장미의 성>, 『신한국문학전집 37』, 어문각, 1977.

33) 이창재, 앞의 책, 164면.

34) 이창재, 앞의 책, 270면.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여자가 아닌 미국인 남성이다.

병희 : 어서 나가요! 이제는 나도 참을 수 없어! 나를 더럽히고 나를 여자 이전에
암컷으로 만들고 만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나가란 말이에요! 암컷과
수컷끼리의 가정은 내가 저주하겠어요! 당신들은 남자가 아니라 짐승이
예요! 들판에서 떼지어 다니는 수컷들! 나가요! 나가!³⁵⁾

윤병희가 남성 콤플렉스 또는 결혼 콤플렉스를 갖는 건 동성애자 남편 탓
이다. ‘깔끔하고 세밀한 손질이 구석구석까지 잘 가’ 있는 실내 분위기를 통해
윤병희의 성격을 알 수 있듯이, 불결함에 대한 그녀의 무의식적 발로는 이같은
과거의 삶에서 기인한다. 그녀는 동성애를 불결한 짐승의 짓이라고 여긴다.
하여, 윤병희는 인간 엄마와 짐승 아빠 사이에 태어난 딸 상애의 ‘더러운
피’를 없애야 한다고 절규한다. 그리고 세상의 남성들을 극도로 저주하면서
외부세계와 철저히 차단한 채 고립되고 폐쇄적인 삶을 산다. 이런 윤병희의
모습은 자궁회귀심리 즉 유년기로의 퇴행욕구 때문이다. 그녀가 유일하게 즐
기는 장미의 성은 현실과는 차폐된 자궁인 셈이다. 따라서 장미의 성은 그 누
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며 자신의 환상 즉 자궁과도 같은 안락함을 제공
하는 공간으로 윤병희는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고 철저히 자
기유폐적이고 고립적인 삶으로의 지향욕구는 건강한 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역시 심인성(心因性) 장애다. 이러한 장애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민한 집착으로 이어진다.

윤병희는 상애의 가정교사 오영택과 두 마리의 수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하는 등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 그러나 오영택은 시어머니인 이씨에 의해 쫓
겨나고, 수캐 두 마리는 딸 상애에 의해 사살된다. 윤병희의 집착 대상을 제거
했다는 점에서 시어머니 이씨와 딸 상애는 윤병희의 삶을 정상적으로 돌아오
게 하려는 교정자들이다. 이들이 윤병희의 집착 대상을 제거한 이유는 윤병희
가 대상에 집착한 동기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가끔씩 찾아오는 김한기는 오영
택이 누군가와 닮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오영택이 자신의 아들인 윤병희의 남
편 얼굴과 닮았다는 사실을 시어머니 이씨는 첫눈에 알아보았다. 이씨가 손녀

35) <장미의 성>, 앞의 책, 455면.

딸 가정교사인 오영택을 내보낸 이유는 여기서 분명해진다. 남편을 애써 거부하고 증오하면서 동시에 남편의 얼굴과 비슷한 오영택을 딸의 가정교사로 끌어들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건 바로 윤병희의 이상 심리 때문이다. 동일대상에 대한 거부와 집착, 이 이중행위는 윤병희가 가면을 쓴 채 자기유 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자아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을 숨기기 위해 자아에 가면을 씌운 페르소나³⁶⁾의 놀이를 한 셈이다. 따라서 오영택과 두 마리의 수캐는 윤병희의 놀이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성 본능의 교란이자 일탈이다. 남편 부재의 상황에서 윤병희의 성적 대상³⁷⁾이 딸의 가정교사와 두 마리의 수캐로 전이된 것이다. ‘사람을 경계하는 듯 그들이 깊어 보이는’ 윤병희의 또 다른 모습에는 ‘거친 물줄기가 흘러내 리’고 ‘성숙한 여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잘 익은 수밀도와도 같은 인상’을 보인다. 한 마디로 관능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윤병희는 남편 부재 상황에서 성 본능을 오영택과 두 마리의 수캐로 대체욕망한 것이다. 두 마리의 수캐를 죽이고 나서 상애가 ‘위선자’라고 윤병희를 질타하자 윤병희는 평소 애지중지했던 조각 작품을 밀어뜨려 깨트린다. 마룻바닥에 쓰러지는 조각소리가 ‘물체가 쓰러지는 소리라기보다 어떤 신음과도 같은 고통소리’로 들리는 건, 진정한 자아의 삶을 외면하고 거짓된 자아로 페르소나의 놀이를 즐긴 윤병희가 뒤늦 게야 발견하는 반성과 후회의 고통소리에 다름 아니다.

5. 결론

성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이 아니라 생리-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간 행위를 나타낸다. 유아의 성욕이 인간 존재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한 프로이트는 이를 통해 인간을 해명하려 했다. 생의 본래적 에너지인 리비도의 상태에 따라 자아와 초자아, 무의식, 그림자, 페르소나 등 다양

36) 페르소나(persona)는 가면이라는 뜻으로 용의 개념이다. 용은 자아와 외부세계의 중재자의 위치에 페르소나가 위치하는 것으로 본다. 현실에 대한 가면 쓴 자아가 곧 페르소나인 셈이다. A.새뮤얼 외, 민혜숙 옮김, 융분석비평사전, 동문선, 2000, 177-178면 참조.

37) 여기서 성적 대상은 실제 성애적 행동의 대상이 아닌, 리비도 대상이다.

한 정신기제가 형성됨은 이미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서 중요 논점이 된 사항이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인간을 해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고는 차법석 희곡이 지니는 특성을 리얼리즘과 단순한 원색적 애욕의 작품으로 가름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정신분석학을 원용해 생리-심리적 관점에서 인물들의 성의식에 집중하고 이를 에로스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산불>에서 점례와 사월은 남성 부재의 상황에서 자기보존욕구와 자기애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행동양상은 다르다. 점례가 강박적 리비도의 유형을 보인다면, 사월은 성애적 리비도의 양상을 보인다. 환경과 성에 대한 사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점례는 가부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물인데 반해, 사월은 가족보다는 자신의 심리적 쾌를 먼저 추구한다. 강박적인 점례나 성애추구적인 사월의 이런 차이로 리비도 유형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리비도의 유형 변화는 주체의 자기보존을 위한 리비도의 변형일 뿐이다. 리비도에 대한 집착은 결국 삶의 본능인 에로스 즉 자기애로 귀결되는 정신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청기와집>의 옥녀의 경우 역시 남성 부재의 상황에서 에로스애의 욕구를 지닌 인물이다. 에로스 대상을 만난 희열도 잠시, 에로스 대상이 체포되자 옥녀는 죽음충동을 일으킨다. 기대했던 에로스의 욕구가 급격하게 좌절됨으로써 극단적인 자기소멸욕구로 변형된 것이다.

한편, <장미의 성>에서 윤병희는 스스로를 고립시켜 자기유폐된 상황을 조성하는 인물이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는 자궁회귀심리 즉 유년기로의 퇴행욕구이다. 장미의 성에 스스로가 유폐되지만, 그녀의 성 본능은 딸의 가정교사와 두 마리의 수캐를 통해 대체 욕망화되면서 성적 대상의 일탈을 보인다. 이는 결국 자아가 가면을 쓴 페로소나의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적 대상이 모두 제거되었을 때 윤병희의 깊은 울음은 뒤늦게나마 자아를 발견한 데서 오는 부끄러움과 고통에 다름 아니다.

〈참고문헌〉

- <산불>, 『한국희곡문학대계』 4, 한국연극사, 1980.
- <장미의 성>, 『신한국문학전집』 37, 어문각, 1977.
- <청기와집>, 『현대한국문학전집』 9, 신구문화사, 1968.
- 차범석, 국립극단 제29회 <산불> 공연 팸플릿, 1962.
- _____, 『대리인』, 선일인쇄사, 1969.
- 김옥란, 『1950년대 희곡의 성담론』, 『한국연극연구』 창간호, 국학자료원, 2008.
- 백로라, 『1960년대 희곡과 이데올로기』, 연극과 인간, 2004.
- 손병덕 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05.
- 유기환, 『에로티즘의 기원과 역사』, 한국프랑스학논집 37집, 2002.
-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기린원, 1987.
- 윤일수, 『차범석의 <산불> 연구』, 『차범석 희곡 연구』, 무천극예술학회, 국학자료원, 2003.
- 이봉일·손정섭, 『차범석의 <산불>에 나타난 성적 욕망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2호, 2005.
- 이승희, 『1960년대 차범석 희곡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11집, 태동, 2000.
- 이창재, 『프로이트와의 대화』, 학지사, 2005.
- 조용훈, 『에로스와의 타나토스』, 살림, 2005.
- 차범석, 『리얼리즘 연극 소고』, 『연극학보』 2집,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 1968.
- 가이메 가르토, 허 환 역, 『드라마란 무엇인가』, 시나리오 친구들, 2000.
- 노스롭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
- 로제 다둔, 신정아 옮김, 『에로티즘』, 철학과 현실사, 2006.
- A. 새뮤얼 외, 민혜숙 옮김, 『용분석비평사전』, 동문선, 2000.
- 프로이트, 김정일 옮김,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2.
- 플라톤, 강철웅 옮김, 『향연』, 이제이북스, 2010.

【국문초록】

성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이 아니라 심리-생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간 행위를 보여준다. 성의 본래적 에너지인 리비도의 상태에 따라 자아와 초자아, 무의식, 그림자, 페르소나 등 다양한 정신기제가 형성됨은 이미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이들은 여전히 인간을 해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산불>에서 점례와 사월은 남성 부재의 상황에서 자기보존욕구와 자기애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행동양상은 다르다. 점례가 강박적 리비도의 유형을 보인다면, 사월은 성애적 리비도의 유형에 해당된다. 환경과 성에 대한 사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청기와집>의 옥녀의 경우 역시 남성 부재의 상황에서 에로스애의 욕구를 지닌 인물이다. 에로스 대상을 만난 희열도 잠시, 대상이 체포되자 옥녀는 죽음충동을 일으킨다. 기대했던 에로스의 욕구가 갑작스럽게 좌절됨으로써 극단적인 자기소멸욕구로 변형된 것이다.

한편, <장미의 성>에서 윤병희는 스스로를 고립시켜 자기유폐된 상황을 조성하는 인물이다. 정신병리학적으로 이는 자궁회귀심리 즉 유년기로의 퇴행욕구이다. 장미의 성에 스스로가 유폐되었지만, 그녀의 성 본능은 딸의 가정교사와 두 마리의 수캐를 통해 대체 욕망화되면서 성적 대상의 일탈로 나타난다. 즉 윤병희를 지배한 건 그녀의 페르소나, 거짓된 자아였다.

주제어 : 에로스, 자기애, 삶 본능, 죽음충동, 리비도, 퇴행욕구, 페르소나

【Abstracts】

A Study on Eros of Cha bum seok's Drama

Lee won hee

Sex is not simple physical pleasure, but very important human behaviour psycho-physiologically. It is already discussed in psychology and psychoanalysis, that libido, intrinsic energy of sex, forms various mental mechanism such as ego, superego, unconsciousness, shadow, persona, etc. They still provide important clues about elucidating human-beings.

In <Forest Fire>, Jeom-rye and Sa-wol are characters revealing self-preservation and self-love(narcissism) in her husband's absence, and yet their behavior patterns are quite dissimilar. While Jeom-rye shows the type of obsessive libido, Sa-wol is the case of sexual libido. That's because they have different ideas on environment and sex.

As for Ong-nyeo in <The Blue Tile-Roofed House>, she also has a desire for eros in her husband's absence. After only a momentary pleasure from having got a lover, she has a death instinct(thanatos) when the lover is arrested. Her expectation for eros is frustrated so extremely that the erotic desire is transformed into a self-defeating drive.

On the other hand, Yun Byeong-hee in <The Rose Castle> makes a self-confined situation by keeping herself isolated. In psychopathology, it's a desire to return to the maternal womb, namely, desire for regression to childhood. She is self-confined to the Rose Castle. However, her sexual

instinct is presented as a deviation in sexual objects by replacing it with a perverse way via two male dogs and the private tutor to her daughter. That is to say, she is under the control of her persona, the false ego.

Key words : eros, self-love, the sex instinct, thanatos, libido, desire of regression, persona

이 논문은 2014년 6월 2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8월 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8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